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최대어 송혜수 낙점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입단
2018년 U-20 세계선수권 MVP
송혜수 "패기 있는 플레이 할 것"
2라운드선 레프트윙 박세림 선발



지난 2018년 U-20 세계핸드볼선수권에서 MVP에 선정된 송혜수(왼쪽).

(1위), 컬러폴대구(6위), 인천시청(5위), 경남개발공사(7위), 삼척시청(2위) 순으로 결정됐다. 인천비즈니스고와 한국체대를 나온 송혜수는 센

터백과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로 2018년 헝가리에서 열린 20세 이하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박세림

감독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다. 송혜수는 기량이 이미 검증된 즉시전력감"이라면서 "주전은 아니지만 강경민의 뒤를 받치는 선수로 이번 리그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드래프트장에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송혜수는 "광주도시공사에 합류해서 같은 팀 선배가 된 (강)경민 언니처럼 패기 있는 플레이를 펼쳐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라운드에서는 박세림(경남체고·피벳, 레프트윙)을 선택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회를 3위로 마쳤지만 송혜수가 대회 MVP에 뽑혔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송혜수는 지난 9월 요르단 아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5연패 달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세일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다. 송혜수는 기량이 이미 검증된 즉시전력감"이라면서 "주전은 아니지만 강경민의 뒤를 받치는 선수로 이번 리그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드래프트장에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송혜수는 "광주도시공사에 합류해서 같은 팀 선배가 된 (강)경민 언니처럼 패기 있는 플레이를 펼쳐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라운드에서는 박세림(경남체고·피벳, 레프트윙)을 선택했다.

박세림은 제76회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경남체고에 준우승을 안겼으며 이 대회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선수단은 레프트윙인 서아루의 뒤를 이어 성장할 기대주로 보고 있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오늘 지명된 두 선수는 광주도시공사에 꼭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이라며 "송혜수는 현재 강경민 선수가 맡고 있는 센터백 포지션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순위 지명권을 얻은 SK 슈가글라이더즈는 한국체대 센터백 이현주를 선발했고, 3순위 서울시청은 역시 한국체대 골키퍼 정진희를 지명했다.

4순위 부산시청공단은 지은혜(황지정산고), 5순위 대구시청은 김예진(한국체대)을 지명했고 6~8순위는 인천시청 장나연(인천비즈니스고), 경남개발공사 정예영(한국체대), 삼척시청 전지연(천안공고) 순으로 1라운드에서 실업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21명이 참가해 총 16명이 실업팀의 부름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최민정·황대헌 금유력 스켈레톤 윤성빈 두번째 금 도전

100일 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4일 개막
한국 금 5개 안팎 획득 전망
빙속·컬링 등서 '깜짝 금' 노려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끝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하나의 성화가 타오른다.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24회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20일까지 7개 종목에서 총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5개 전후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한 예상 종합순위는 10위다.

금메달은 주로 쇼트트랙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여자 중장거리 선수인 최민정(성남시청)은 1000m와 1500m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최민정을 중심으로 한 여자 계주도 평창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남자부에선 황대헌(한국체대)이 한 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한국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선 개최국 중국의 흥겨움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대표팀은 지난해 한국 출신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기술코치를 선임하며 태극전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메달을 노린다. 다만 뚜렷한 금메달 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이자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강원도청)도 대표팀 선배 노선영(은퇴)과 불화로 상처를 받았다.

다만 메달권에 근접한 선수는 많다.

2018 평창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리스트 차민규(의정부시청)와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관

BEIJING 2022

빙상 종목
빙속, 컬링,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2022년 2월 4일~20일

7개 종목 119개 금메달

33개 구역을 29곳

베이징 개폐회식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컬링,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관식

연합뉴스

인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파이널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한 정재원(서울시청) 등이 기대를 받고 있다. 설매 종목에선 스켈레톤 윤성빈(강원도청)이 생애 두 번째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설상종목에선 지난 3월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4위에 오른 김상겸(하이원리조트)과 '배추보이' 이상호(하이원리조트)가 기대를 모은다. 평창올림픽에서 큰 감동을 안겼던 컬링과 봅슬레이도 이변을 노린다. /연합뉴스



매혹적인 연기 27일 일본 기타큐슈의 서일본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 개인 예선에서 한국의 서고은이 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는 비거리’라던 미켈슨의 망신

시니어무대에서 334야드 초장타 날렸지만 결과는 공동 47위

‘골프는 비거리’라던 필 미켈슨(미국)이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미켈슨은 만 50세를 넘겼지만, 비거리에서는 20대 선수 못지않다.

그는 50세 이상 선수만 출전하는 시니어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에 진출해서도 이런 비거리를 앞세워 3승을 쓸어 담았다.

지난 시즌 그는 챔피언스에서 평균 311야드를 때렸다. 대회 출전 횟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1위다.

챔피언스 대회 코스는 PGA 투어 대회보다 훨씬 짧다. 대부분 파 4홀 두 번째 샷에서 웨지를 썼다. 미켈슨은 지난 25일(한국시간) 끝난 챔피언스

도미니언 에너지 챔피언스 클래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비거리를 내세워 경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는 더 멀리 날려 보내려고 한다. 챔피언스에서 비거리 1위를 원한다. 305야드 이상 때리려고 한다. 그게 내 방식이다. 나는 웨지를 잘 친다. 웨지 거리를 남기면 누구도 날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1라운드 평균 316야드 등 평균 299.5야드의 장타를 날렸다. 334야드를 날아가는 초장타도 터트렸다.

하지만 결과는 공동 47위(이븐파 216타)에 그쳤다. 우승자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에 무려 14타

뒤졌다. 장타가 똑바로 않았기 때문이었다. 페어웨이 안착률이 45%에 불과했다.

9번 홀(파5)에서는 이를 연속 쿼드러플 보기를 적어냈다. 드라이버 티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날아간 게 화근이 됐다. 3라운드 대회에서 쿼드러플 보기가 2개를 곁들이면 상위권 입상은 어렵다.

우승자 랑거는 대조적이다.

그는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가 277야드였다.

대신 페어웨이 안착률은 76%에 이르렀다.

미켈슨은 그러나 비거리 위주의 경기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은 여전하다.

그는 SNS를 통해 "상대 선수보다 티샷을 30~50야드 더 보내서 나는 웨지를 잡고, 그들은 5번이나 6번 아이언을 잡는다면 내가 이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가 티샷을 똑바로 보내지 못하면 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3관	돈
4관	이네트, 애프터: 관계의 함정
5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6관	돈, 보이스
9관	바다 탐험대 육토티: 육자수호 대작전
고장난론	
7관	새네거울
8관	새네거울

7관 새네거울: 뚝, 당신은 믿지 않았지만, 그림자꽃
애프터: 관계의 함정, 보이스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용과 주군께 공중
극장만 믿는 뚝딱: 죽을 뻔한 왕국과 열두 네 명의 용사들

GAC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간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2021. 11. 20.(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7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